

‘한계 뛰어넘는 बैं킹’ 신한은행이 해냈다

슈퍼마켓·편의점 안에 미니은행
예금 신규 등 24시간 365일 이용
우리 동네 배달 앱 ‘땡겨요’ 선풍
전용 카드·적금, 큰 혜택에 인기

신한은행이 디지털 혁신점포와 생활 금융 플랫폼 구현을 통해 2022년 전략목표인 ‘한계를 뛰어넘는 बैं킹’을 실천하고 있다. 편의점 및 슈퍼마켓 혁신점포와 배달 앱 땡겨요가 대표 콘텐츠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신년사에서 “배달 앱을 통해 업무 범위를 넓히고, 제휴를 통한 서로 다른 영역의 데이터 연결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퇴근 후 슈퍼마켓에서 은행 업무

먼저 GS리테일과 함께 편의점 및 슈퍼마켓 혁신점포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ESG 경영 관점에서 금융 접근성 향상, 디지털 기기 활용을 통한 업무 편의성 개선을 목적으로 양사 역량을 집중한 결과물이다.

지난해 10월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편의점 GS25 혁신점포를 선보인 데 이어, 12일 GS더프레시 광진화양점에 슈퍼마켓 혁신점포를 오픈했다. GS더프레시 광진화양점은 서울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하루 방문 고객 2000명이 넘는 대형 점포로, 대학 주변이라는 지역 특성상 2030 MZ세대 고객이 주로 내점한다.

해당 점포에 화상상담창구인 디지털 데스크, 스마트키오스크를 설치했다. 디지털데스크로 신한은행 디지털영업부 직원과 화상상담을 통해 대출, 펀드, 신탁, 퇴직연금 등 영업점 창구 대부분의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스마트키오스크로는 예금신규 등의 간단한 창구 업무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 디지털 혁신점포와 배달 앱 등 생활금융 플랫폼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는 बैं킹’을 실현하고 있다. GS 더프레시 광진화양점에 오픈한 신한은행의 슈퍼마켓 혁신점포(왼쪽)와 배달 앱 ‘땡겨요’ 전용 카드.

사진제공 | 신한은행

로봇 컨시어지가 고객을 맞이해 직접 안내하고, QR코드를 통해 이벤트 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AI(인공지능) 은행원은 디지털데스크와 스마트키오스크에 접속한 고객의 필요한 업무를 확인하고 간단한 업무도 처리한다. 디지털데스크를 통한 화상상담 업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스마트키오스크는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하다.

회사 측은 “뛰어난 접근성이 강점인 GS리테일의 편의점과 슈퍼마켓에 디지털 혁신 공간을 구현하면서, 은행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고객 창출이 기대된다”며 “향후 GS리테일과 협업한 혁신점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고객이 더 쉽고, 편안하며, 더 새로운 금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배달앱 ‘땡겨요’ 관련 금융 상품 인기

생활금융 플랫폼의 일환인 배달앱 ‘땡겨요’도 관련 금융 상품을 선보이며 진

화하고 있다.

땡겨요는 ‘너도살고 나도사는 우리 동네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낮은 중개 수수료, 빠른 정산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 적립 및 할인 등의 혜택을 통해 이용자인 고객, 가맹점인 소상공인, 배달 라이더까지 참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 플랫폼을 추구한다.

땡겨요에 적금을 결합한 ‘신한 땡겨요 적금’도 출시했다. 월 저축한도 1000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6개월 만기 적금이 다. 매주 적금을 자동이체로 납입해 단기간에 목돈을 모을 수 있다. 모바일뱅크 신한 솔(SOL)에서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고, 기본금리 연 1.4%에 우대금리 1.5%p를 추가해 최고 2.9%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땡겨요 회원 가입, 땡겨요에서 일회용품 미요청으로 3회 이상 주문, 15주 이상 적금 납입 시 각 0.5%p씩 최대 1.5%p 제공한다. 적금 가입 등 미션을 달성하면 최대 2만1000원 상당의

땡겨요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또 신한카드와 손잡고 ‘땡겨요 전용 카드’를 내놓았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땡겨요 앱 결제 시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배달라이더 전용 카드도 눈에 띈다. 전 가맹점 0.2% 포인트 적립, 주유·편의점 이용 시 추가 0.2% 포인트가 쌓인다.

회사 측은 “타 배달 앱 경쟁사와 차별화된 금융 본업을 강화해 고객 기반의 적금 및 배달 라이더를 위한 전용 카드를 출시했다”며 “가맹점, 고객, 라이더 모두 착한 소비로 행복해지는 쉽고 편안한 새로운 배달 앱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땡겨요는 18일 ‘착한 리뷰송’ 광고를 공개했다. 불순한 의도로 악성 리뷰를 달고 별점을 테러하는 악플러에게 가수 이혁이 배달 라이더로 분해 사장님을 대변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콘셉트다. 1990년대 레트로 감성의 뮤직 비디오 형식으로 제작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KB금융, TNFD 가입…ESG 경영 가속화

KB금융이 15일 ESG경영 일환으로 ‘TNFD(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에 가입했다. TNFD는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기업의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는 글로벌 협의체다. 유엔과 세계자연기금(WWF)의 주도로 지난해 6월 출범했으며, 현재 약 35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가입을 통해 KB금융은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연과 관련된 재무 공시기준 개발에 참여한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ESG 전략 수립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사회와 환경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차별화된 ESG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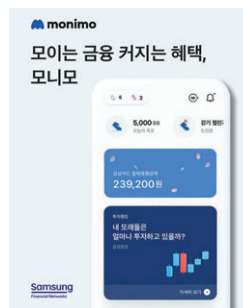
우리은행, 아이디어 제안 고객패널 모집



우리은행이 24일까지 ‘우리 팬 리포터 3기’(사진)를 모집한다. 은행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제안 활동을 수행하는 고객

패널이다. 10명 내외로 모집하며, 수도권 거주 고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선발자는 12월까지 정기 간담회에 참여해 고객 불편사항, 상품 및 서비스 개선사항,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소정의 활동비는 물론, 활동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젊은 층으로 구성된 SNS패널을 선발해 우리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은행 이용 팁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우리WON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 앱 ‘모니모’ 출시



삼성금융네트웍스가 통합 앱 ‘모니모’(사진)를 선보였다. 삼성생명, 화재, 카드, 증권 등 삼성금융 4사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차별화된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통합 앱이다. ‘모이는 금융, 커지는 혜택’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하나의

계정으로 삼성금융 4사의 거래현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사가 엄선해 제공하는 대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출시 기념으로 6월2일까지 비스포크 병창고, 갤럭시 S22 등을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를 연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미래에셋증권,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

마이데이터 수집 정보로 추가 가점
다른 서비스로 가점 받았어도 가능

미래에셋증권이 마이데이터 기반 신용점수올리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 시리즈의 일환이다.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하며 선보인 신용점수조회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다. 보다 손쉬운 신

용정보 관리를 위해 기획했다.

기존 금융권의 신용점수조회 서비스는 통신비,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 비금융 성실납부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제출하고, 신용점수 가점을 받는 구조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의 신용점수올리기 서비스는 금융 마이데이터 제도를 통해 수집된 고객의 금융자산, 연금정보를 통해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이를 통해 이미 다른 서비스로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받은 고객도 추가로 신용점수 올리기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은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취득해 통합자산조회, 올인원 AI(인공지능) 닥터빅 투자진단, 신용점수조회 등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불편했던 자산을 모아서 보고, 투자진단과 투자성과 비교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김세훈 미래에셋증권 디지털플랫폼본부장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라는 시리즈를 기획해 기존에 구현하기 어려웠던 고객의 페인 포인트(고

충점)를 마이데이터로 해소하는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며 “수익에 도움은 물론 리스크, 비용, 시간, 수고를 줄여주는 콘텐츠로 새로운 투자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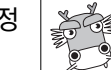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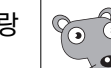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6월30일까지 개인형 연금(연금저축, IRP) 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2022년 연금은 미래다’ 연금이전 이벤트 시즌2를 진행한다.

개인연금 및 IRP 계좌로 1000만 원 이상 계약을 순이전 하는 경우 최대 10만 원(이전 금액별 지급)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IRP는 3만 원 한도다.

정정욱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4월 19일 (화) 음력: 3월 19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뒤흔들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욕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자제하라.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아가라.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망신수가 따를 수 있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쉬울 때이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취업이 되는 운이다.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다. 욕심이 많은 날이다.						
 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시시한 일들로 인해 웨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급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시킨다. 먼저 상대의 입장을 살펴라. 공연회 분주한 날이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둠과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을 삼가하라.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물이 밀바닥은 흐려도 위 일수록 맑듯이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지출이 심하니 잘 조절하라 은행 대출은 기다리면 된다. 소송사건은 오래 가겠다.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본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부리지 말라.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생각대로 실행하라.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았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를 보게 되니 내일 행하라. 앞서거나 서두르지 말라. 신용을 잃을 수 있다.						

오늘의 날씨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9 21		10 17		6 23
강릉	0/0	대전	20/0	전주	20/0
	10 20		9 24		9 23
광주	20/0	대구	20/20	부산	20/0
	10 25		11 25		13 21
창원	20/0	제주	0/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2 23		12 19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07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